전북대,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선정

산업통상부의 80억 규모 인재양성 사업 선정… 실무형 석박사급 양성 위해 군산대 · 전주대 연합 수행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80억여 원이 투입돼 5년 동안 실무형 석·박사 300여 명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대를 비롯해 군산대, 전주대 등 3개 대학이 연합해 사업을 수행한다.

전북대는 대학원 에너지공학과와 학습도서관 옆에 건립한 전북대 해상풍력국제공동연구소, 공공발전사, 유니슨 외 참여기업 8개사와 함께 채용과 연계된 해상풍력 기자재 설계기술과 유지보수(O&M) 기술 등을 연구하고 교육한다.

에너지공학과는 이 사업을 통해 5년간 해상풍력에너지 분야 100명의 석·박사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 기계설계공학부와 대학원 에너지공학과는 4년간 해상풍력연구소를 건립하고 교육기자재를 준비하는 한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역 내 기술혁신 역량이 우수한 해상풍력 기업 및 공공발전사와 문제 해결형 산학연 프로젝트 등을 수행해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외 28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북대 해상풍력국제공동연구소의 연구개발 실적과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 보유하고 있는 폭넓은 인프라를 활용해 이 사업을 실무기술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원 에너지공학과는 4학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5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석·박사 과정에 수혜를 받은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총괄책임을 맡은 선민영 교수는 "참여 연구소 및 기업들과 연계해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에게 실무 기술 중심의 교육을 시키고,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이 큰 의미가 있다"며 "해양구조물 설계 및 해석 기술, 해상풍력 시스템 제작·운반·설치 기술, 유지보수(O&M) 기술 등의 전문 교육과 공동 연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해상풍력분야 기술의 국산화와 고도화의 새 주역?고도화의 새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천호성 · 황호진후보 단일화선언

'특권경쟁교육 반대 · 교육자치 강화' 위한 단일후보선출에 합의

천호성·황호진 교육감 예비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두 예비후보는 1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권경쟁교육 반대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단일후보 선출에 합의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 후보는 합의문에 서명한 후,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뜻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양 후보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단일후보의 정책과 선거운동에 있어 단일화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양측 실무책임자가 합의한 단일화 여론조사방식에 따라 단일후보를 5월 13일까지 선출한다 *단일후보로 선출된 후보는 단일후보로 선출되지 못한 후보의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당선시 차기 전북교육 정책으로 반영한다 *선출된 단일후보의 선거승리를 위해 양 후보 캠프를 화학적으로 통합하고, 양 후보 중 단일후보로 선출되지 못한 후보는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승리를 위해 헌신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발표된 후보 단일화 방식은 11~12일 이틀 간 도민 대상 여론조사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양성평등 중점학교 운영 '박차'

양성평등 중점학교 운영 업무담당자 사전협의회 개최… 중점학교 운영지원 · 방안 협의

전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이 배려와 존중의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인성건강과 상담실에서 양성평등 중점학교 운영 업무담당자 사전협의회를 갖고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중점학교 운영 및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지난 2020년 12월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과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지향하기 위해 양성평등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 중점학교는 교실 속 성평등 실천문화를 조성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다양한 체험 중심의 양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양성평등 중점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소양서초등학교, 고산중학교, 전주만성중학교, 푸른꿈고등학교 등 4개 학교다.

이들 학교에는 각 700~900만 원의 예산이 지원,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구축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활동,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연수, 가정과 연계한 학부모 연수 등 학생과 교사, 가정이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운영사례 발굴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실천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양성평등은 존중과 배려가 있는 교실 인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면서 "중점학교를 시작으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성인지감수성이 향상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제1회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4월 9일 치러진 2022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누리집(www.jbe.go.kr) [교육소식-알림시항-고시/공고]에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시험은 총 1,068명이 지원, 748명이 합격해 81.84%의 합격률을 보였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68세), 중졸(79세), 고졸(86세)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11세), 중졸(13세), 고졸(13세) 이다.

합격증서는 우편수령을 신청한 사람은 2~3일 후 집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고, 방문수령을 신청한 사람은 오는 24일까지 도교육청 별관 1층 고객지원실에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성적조회는 5월 30일까지 도교육청 누리집/교육소식/성적확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멀쩡한 원도심 학교 폐교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전교조 전북지부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폐기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송육진)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멀쩡한 원도심 학교의 폐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폐교 대상으로 거론되는 학교의 교사·학생·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하는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화정중학교(에코시티)와 양현중학교(혁신도시)를 신설할 때,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2022년 12월까지 전주시 구도심 중학교 2개교를 폐교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사후조건부 승인을 했다. 폐교 조건을 완료하지 못하면 340억원에 달하는 교부금이 삭감된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2년 동안 대책 마련 없이 허송세월하다가, 시점을 1년도 남기지 않고 원도심 학교들에 '적정규모화 논의 대상 학교 공모' 공문을 내려보낸 것.

기린중 폐교저지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기린중학교는 지난달 10억여 원을 들여 급식 식당을 신축했다. 학생 수도 학급당 20명 안팎으로 수업하기에 적정규모다.

학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들여 가꾸고 애정을 쏟아 희망을 노래하던 학교 공동체에 갑자기 폐교의 칼날을 들이대는 황당한 교육정책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하소연했다.

한편, 근원적인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정책이다. 이 정책에 따르면 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기존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 그리고 그 폐교 재산을 캠핑장 등의 관광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성 기자

"단일화, 오직 선거 승리만 위한 야합"

서거석 교육감 예비후보 입장문 발표

서거석 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천호성·황호진 예비후보의 단일화는 "오로지 선거 승리만을 위한 야합이다"며 비난했다.

이에 따르면 얼마 전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정책들을 내세워 연대하겠다고 하더니 그것이 단일화로 가는 수순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고 밝혔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현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계승하겠다고 나선 자칭 민주진보 후보다.

반면 황호진 후보는 김승환 교육감 12년을 전북 교육의 위기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둘의 지향점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결이 다른 두 후보의 단일화는 야합이다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두 후보의 공통점은 기득권 연장, 기득권 나누기에 뜻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이번 단일화 과정을 통해 소위 민주진보후보 선출의 허구성도 명백히 드러났다. 선출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 결합함으로써 애당초 그들이 내세운 민주진보 후보라는 명칭이 허울뿐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고 했다.

서 예비후보는 "이제 민주진보라는 허울과 가면을 벗어 던지라. 오로지 선거 공학에 의한 두 후보의 야합을 보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답답하다"면서 "안에서는 단일화를 진행하면서 TV토론에 나와 둘이 짜고서 특정 후보를 공격한 반칙과 부정에 대해서도 도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 후보의 야합은 유권자인 도민이 심판할 것이다"며 "서거석은 오직 우리 학생만을 보고 가겠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담대한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국제금융분야 장학생 선발

전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김학권)은 전북도의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국제금융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국제금융분야를 전공하거나, 동 분야로의 진출을 준비중인 전북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60명을 선발, 1인당 1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공고일 기준 6개월이상 전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내소재 대학에 재학중이고 국제금융분야 전공이거나, 동 분야로의 진출을 준비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선발기준은 신입생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재학생은 전체학년 평균 성적을 각각 점수로 환산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고, 성적이 B+이상인 경우는 우선 선발한다.

선발일정은 5월중에 신청을 접수받고, 6월중에 진흥원 장학생 심사위원회에서 장학생 선발을 확정하며, 6월말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장학금은 LS그룹 구자열 회장이 지난해 전북도에서 개최된 지니포럼에서 수상한 지니어워즈(GENIE Awards) 상금 1만달러에 LS그룹과 한국무역협회가 각각 3만달러와 1만달러를 매칭, 총 5만불을 전북도 국제금융인재양성 목적으로 지정 기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유호상 기자

"하루에 열 번 감사를 행동으로 전하자"

전주비전대 '10Q 감사행전' 캠페인… 누구에게나 밝게 인사하기

수업 후에도 감사 인사하기, 감사를 표현하기, 감사 일기 쓰기 등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삼모)는 '10Q 감사행전' 캠페인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10Q 감사행전'이란 하루에 열 번 감사를 행동으로 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누구에게나 밝게 인사하기, 수업 후에도 감사 인사하기, 감사를 표현하기, 감사 일기 쓰기 등의 감사를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9~11일까지 3일 간 실시한다.

이번 '10Q 감사행전' 프로그램은 5월 감사의 달을 맞아 '감사 네컷'(교수님에게 사진으로 감사 전하기), '감사 나무'(친구에게 감사 전하기), '감사 우체통'(부모님에게 감사 전하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감사 행전 운동을 확산해 가고 있다.

전주비전대는 '감사행전' 운동을 학생중심의 대학다움을 일궈가는 초석으로 만들고자 인성 교과목에 '감사와 배려' 과목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선교지원처 김영선 목사는 "평상시 잊고 살았던 감사를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의 일상이 행복해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이 운동이 대학뿐만 아니라 교회, 지역사회에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윤태 예비후보 "제2 전북과학고 추가 설립"

'전북형 과학인재양성' 해 부강한 첨단과학기지 전북 만들기 공약

김윤태 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전북형 과학교육인재양성'으로 부강한 첨단 과학기지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역균형발전과 영호남 격차해소 차원에서 전북에 과학고 1곳을 추가 설립해 과학고 2곳을 운영하고, 농어산촌지역에는 과학중점학교를 최대한 많이 지정해 학생의 과학노출도 및 수학친화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과학인재를 많이 배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 전북 과학인재육성 시스템을 전국상황과 비교해 살펴보면 영남지역 과학고는 모두 10개교에 정원이 632명으로 호남지역 정원 140명에 비해 4.5배가 많고, 인구비례로도 2배 이상 많아 영호남의 과학인재 격차가 영호남의 경제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전북형 과학교육인재양성 실행과정에서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 관련기업과 협력해 과학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심한 기회균등선발전형과 지역균등선발전형을 통해 부유층이 독점하지 않도록 신분대물림과 부모찬스를 공교육에서 대체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